

제주학아카이브와 제주도 무형유산 자료의 구축

좌혜경*

〈차 례〉

1. 서언
2. 제주학아카이브와 자료 구축
3. 무형유산 자료의 가치와 구축
4. 결어

【국문초록】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8월 12일에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 10월 11일부터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자리잡아 제주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개원 초기부터 관심을 둔 것은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DB화 그리고 보존 관리 및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활용을 통한 제주학의 대내외 홍보였다.

제주학아카이브의 활용은 학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제주학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학문적 자료 제공, 웹사이트를 이용한 자료 제공으로 제주학 자료의 통합 교류 및 글로벌화와 같은 제주학 자료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지식 자산화에 두고 있다.

현재 구축된 자료 중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제주도 무형유산에 관한 자료들로서, 예를 들면 제주해녀, 제주민요, 제주무속, 또는 당, 본풀이인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무형유산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지방이 세계화에 조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역학의 설립과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가장 지역성이 강한 자료는 지역민의 정신이 담긴 무형유산 자료로 지역의 정체성이 잘 담겨있기도 하다.

지역의 공동체의 문화로 아이덴티티가 강한 자료들은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세계화가 가능한 자료들이고, 이는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가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choahg@jri.re.kr

대응으로 지역단위에서의 지역화(glocalization)를 위한 논리개발이 요청되어 지역문화를 학제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제주도 무형유산의 글로벌 유산으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인정하고, 현재 아카이브 구축 실태를 파악하여, 차후 제주학아카이브가 제주도 무형유산의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제주도 무형유산의 지속보전을 위한 자료 구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주요 용어〉 제주학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제주무형유산, 제주민요, 제주해녀문화, 제주무속, 본풀이

1. 서언

제주학은 대체적으로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역사 및 제주어, 문화(특히 유·무형의 문화유산)를 총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8월 12일에 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 10월 11일 제주연구원내에 부설기관으로 자리잡아 제주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개원 초기부터 관심을 둔 것은 제주학 관련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DB화 그리고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활용을 통한 대내외 홍보였다.

이는 학문적 자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문·사회·자연과학 제영역의 연구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주학 자료의 수집과 분류를 위해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학 연구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했다. 앞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지식 자원화에 힘쓰면서 수요자 중심의 자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조례 제1020호, 2013.03.20. 변경 2016.11.23.) 를 마련하기도 했다.

제주학아카이브의 활용은 학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학문적 자료를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학 자료의 통합 교류 및 글로벌화, 제주학 관련 자료 활용 및 부가가치 상승으로 지식 자산화에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적인 분류체계와 효과적인 정보 제공으로 사이트 간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료의 구축 대상은 제주학 기초 연구물 단행본 등 연구물DB, 고문서와 고문헌, 영상자료(CD, DVD), 사진 등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 구술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소장처는 개인(학자 또는 사진가 등)이나 기관,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제주학아카이브에 50,000여건의 구축된 자료 중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제주무형유산에 관한 자료들로 예를 들면 제주해녀, 제주민요, 제주무속, 또는 당, 본풀이인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무형유산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지방이 세계화에 조용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역학의 설립과 발생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자료는 지역민들이 정신이 담긴 무형유산 자료를 손꼽을 수 있다.

지역 공동체 문화로 아이덴티티가 강한 무형유산 자료들은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세계화가 가능한 자료들이고, 이는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가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단위에서의 지역화(glocalization)를 위한 논리개발이 요청되어 지역문화를 학제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제주학연구센터, 2016 : 3)

본고는 제주도 무형유산의 자료적 가치가 중요함에 따라,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용에 대한 제언 등으로 제주학아카이브가 제주 무형유산의 지속보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고, 이러한 자료의 구축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했으면 한다. 우선 구축자료가 타 유형보다 건수가 많은 제주민요, 제주무속과 신화 본풀이, 제주해녀문화 관련

구축자료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2. 제주학아카이브와 자료 구축

1) 제주학아카이브의 비전과 목표

‘아카이브’란 용어는 원래 정부나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을 소장하여 보관하는 문서관을 뜻한다.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대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아카이브는 일종의 자료를 디지털로 보관, 자료간의 관련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동영상, 음향(구술자료), 텍스트, 사진, 음악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다.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 관련 고문서, 고문헌을 비롯하여, 제주학 단행본, 논문 등의 연구물DB, 영상자료(CD, DVD), 사진, 음향(구술) 등의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로서의 1차적 기능이 있다.

특히 생활사 혹은 구술사, Life Story 등 사라져가는 민속영상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연구가 시급하고,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과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주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이 우선 되어야한다. 더불어 자료의 보존·관리 최적화를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구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의 수집, 보존, 분석, 연구를 위한 기관이나 기구(직제) 등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다. 그간의 아카이브 구축 경과를 보면 제주학연구센터는 2012년 8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http://www.jst.re.kr>)를 오픈하였다.

그 이래 2020년 1월 현재 50,000여건의 문헌,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대국민 대상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제주학아카이브 기본계획에서는 제주학아카이브의 비전과 목표를 “제주학 지식자원의 가치 재창조”로 삼고, 정보화 자료관의 역할과 연구소의 역할, 공공서비스 확대 기능을 포함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화 자료관의 역할은 제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학 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한 1차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제주학 관련 연구가치가 있는 연구물들을 수집하고 분류 등록하며,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메타데이터에 의한 DB화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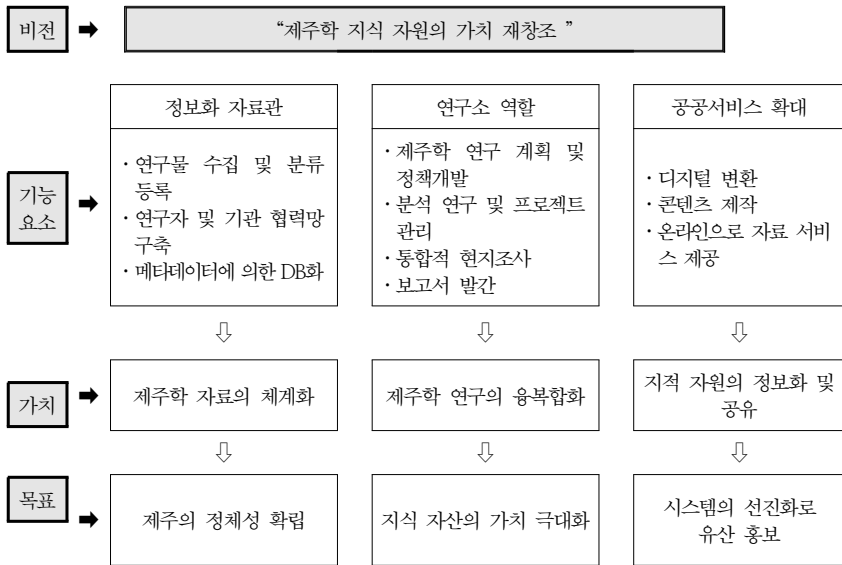
제주학아카이브는 자료 구축과 정보화 만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박순철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플랫폼(ICH Platform)의 역할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제주학연구센터, 2019 : 12) 1) 무형유산 자료와 정보가 있는 곳, 2) 무형문화의 행사가 있는 곳, 3) 무형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이 행해지는 곳 : 곧 데이터와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가치 있는 곳, 4) 무형문화의 변화와 도전을 알 수 있는 곳, 5) 무형유산 전문가, 장인, 연구자,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함께 하는 곳, 6) 무형유산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곳으로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탑재된 자료들은 다시 연구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연구를 위한 원천 소스로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곧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거나 더욱 진전된 정책연구로 도민들의 삶의 발전에 환원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개별적인 학문 분야에 치우친 연구가 아닌 융복합화로 제주학의 체계화가 가능하다.

처음 아카이브 구축 계획 시의 제주학아카이브 비전과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제주학 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2) 제주학아카이브 자료구축

디지털아카이브(Digital archives)는 아날로그 상태의 자료를 디지털로 바꿔서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으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장기간에 걸쳐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물, 기초자료가 되는 영상자료,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아날로그 자료인 경우는 디지털화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은 역사, 가치, 기술,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다.

아카이브 구축 흐름을 보면 정책입안 이후 자료 목록을 결정하고, 제주관련 연구물, 사진, 음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디지털화 된 자료를 시스템에 구축한다.

아카이브 업무 중 실제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 프로그램 관리기획이다. 정책개발과 대외교류 협력, 홍보와 자료 보존 계획 수립, 표준 모델 개발, 협력망 구축으로 자료 수집과 구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자료 수집 기획, 등록, 자료 분류, 자료 DB 등록, 귀중본이나 고서 등 보존 관리 업무, 기증자 자료 관리 및 이용의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 분석으로는 수집,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선정하거나, 현장조사와 기획운영, 분류체계 수립 및 연구보고서 발간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화 업무로서는 소장 유물 DB 구축과 관리, 표준아카이브시스템 개발 운영, 디지털 변환, 아카이브 자료 통합 관리를 들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 유통 관리와 멀티미디어 활용 기반 구축을 마련할 수 있다.

제주학아카이브 디지털 자료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맞춰서 설계했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용하는 듀이십진분류법(DDC : 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에 기인한 것으로 주류를 바탕으로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總類)(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순수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 따위 열 가지 주류(主類 : section)의 강목(綱目)으로 구분되는데, KDC의 계층적 분류표를 참조하여 학문이나 주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것들로 전개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학문분야(관리 번호 부여)를 나누고, 편의상 번호와 간행물 유형별, 발행 시기별(연도 등), 저자 명, 제목 별로 구분하여 기술 계층별 검색으로 군(group)〉 계열(series)〉철(files)〉건(item)을 설정했으며, 연도별 검색 1960〉 1970〉 1980〉 1990〉 2000), 또한 기증자나 생산자별로는 ㄱ, ㄴ, ㄷ의 순서로 정리했다.

참고로 현재 무형유산 자료, 학문 분야별 그리고 유형별 분류에 따른 탐색 정보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제주학아카이브에 구축된 자료들은 유형별로 동영상, 구술자료, 연구물(제주학DB)로 구분하고 2020년 1월 기준으로 주요한 자료들을 추출하면 단일 유형의 콘텐츠 중에는 무형유산 자료들이 건수가 많은 편이다.

구축자료의 많은 정보들이 해녀, 무속, 민요 등 제주무형유산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무형유산이 가장 시급히 소멸되어 구술 채록 혹은

현장 실지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6년 12월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그 이후 해녀에 대한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점도 한 요인이 되었다.

〈표 2〉 무형유산 관련 자료 구축 내용(2020년 1월)

제주민요	1301	연구물 DB	71
		동영상	159
		사진	11
		구술자료	1060
제주전설	371	연구물 DB	88
		동영상	55
		사진	204
		구술자료	24
제주신화(본풀이)	368	연구물 DB	277
		동영상	75
		사진	0
		구술자료	16
제주무속	3415	연구물 DB	146
		동영상	515
		사진	2752
		구술자료	2
제주해녀	2632	연구물 DB	252
		동영상	68
		사진	2191
		구술자료	121
관모공예	30	연구물 DB	0
		동영상	10
		사진	5
		구술자료	25

제주학아카이브 학문 분야별, 유형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문 분야별 정보 : 51,828건(2020년 1월)

총류	219건	제주학96건, 연보13건, 학술조사62건, 기타48건
철학	10건	
종교	3,389건	무속3,222건, 기타42건, 불교15건,
사회과학	12,921건	여성2,026건, 문화2,686건, 민속1,491건, 사회3,380건, 교육710건, 행정·법827건, 관광673건, 경제758건, 정치270건, 기타100건
순수과학	3,520건	동물654건, 식물720건, 환경857건, 해양827건, 지질448건, 기타14건
기술과학	2,859건	의,식,주955건, 건축156건, 농축업533건, 수산업317건, 의학316건, 산업559건, 기타23건
예술	941건	음악783건, 미술80건, 기타78건
언어	562건	제주어554건, 기타8건
문학	1,555건	구비문학1,404건, 현대문학47건, 기타104건
역사	25,852건	고고413건, 지리68건, 제주사일반24,093건, 사회116건, 문화677건, 4.3사건85건, 인물258건, 항일운동28건, 기타 114건

〈표 4〉 유형별 정보 : 51,828건(2020년 1월)

제주학DB	10,838	
고문헌	225	
해외문헌	8	
고지도	8	
사진	13,201	버섯200, 야생화166, 노루31, 곤충163, 새114, 목죽128, 포구268, 해녀1,480, 무속2,753, 오름152, 지역사회3,476, 원담87, 성읍368, 문화재1,552, 역사기사1,167, 해녀음식 639, 민속457
동영상	1,612	한라산3, 자연유산4, 제주인30, 해녀65, 문화상징103, 대한뉴스141, 민요159, 제주어228, 무속591, 제주사73, 기타 187
구술(음성)	1,335	구비전승57, 민요1,060, 생애사59, 제주어66, 기타69
신문기사	5,118	제민일보215, 한라일보593, 제주신보424, 역사신문3002, 제주대신문884
제주역사	19,483	신증동국여지승람3, 고려사258, 조선왕조실록1,753, 비변사등록279, 승정원일기16,123, 일성록1,067

3. 무형유산 자료의 가치와 구축

1) 제주민요 자료

제주민요는 제주인의 삶과 정서가 울곧게 남아있는 노래 장르라 할 수 있다. 노동과 의례, 유희와 함께 노래의 기능성이 뛰어난데, 육지부 지역에 비해 유희요 보다는 노동요가 많은 것은 제주의 자연,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제주민요는 크게 세 주제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와 장례의식 등 의례 시에 부르는 의식요, 노래 자체의 흥을 즐기는 유희요가 있다.

노동요는 밭에서 농사일과 함께하면서 부르는 ‘농업요’, 바다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어업요’, 짐을 짓거나 배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벌목(伐木)후 나무를 끌어들면서 부르는 ‘임업요’, 보리나 메밀 등 곡식을 얻기 위해 방아를 찼거나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제분요’, 망건이나 탕건을 짜면서 부르는 ‘관망요’, 하천이나 산에서 말 방앗간의 방앗돌을 제작하고 마을로 굴러오면서 부르는 ‘방앗돌굴리는소리’나 풀무질하면서 부르는 ‘불미노래’ 등은 ‘잡역요’로 구분된다.

제주시 화북, 조천, 도두 등 포구를 중심으로 조선조 양반들이 사용하던 갯이나 탕건, 모자, 망건을 짜면서 부르는 노래는 현재 전승이 끊겨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장례의례 시에 마을의 남정네들이 불렀던 의식요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행상노래’, 진토를 파면서 부르는 ‘진토긋파는소리’, 달구를 찼는 ‘달구질소리’가 있다. 제주시 목관아의 관변지역이나 표선면 성읍에서 전해지던 창민요는 지금은 예술단들의 활동으로 도 전역에서 불리고 있다.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희요보다 노동요가 많은 편이다. 환경적으로 지역의 특성상 논농사요 보다 밭농사요가 대부분이며, 여성들이 물질작업 할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해녀노래’(노젓는 소리)가 유명하다. 가사 면에서 보면 제주에는 서사민요가 드물고 서정요가 많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조선조의 목사 파견과 왜구의 침략에 의한 지배와 저항에 관한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사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대체로 어둡고, 변방이라고 인식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서울을 지향하고 양반을 동경하는 가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95호로 ‘제주민요’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와 노동요로서 ‘맷돌노래’가 있다. 표선면 성읍마을 중심의 창민요 세 곡이 조선조 500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 소속 관기들에 의해 전해지다 민간에 전파되어 남아있다.

지방의 무형문화재로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해녀노래’는 바다에서 물질 작업을 행하던 ‘해녀’들에 의해 불리던 원시 어업노동요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는 ‘제주농요’로 ‘밭 밟는 노래’와 김(검질)맬 때 부르는 노래의 대표적인 ‘사대소리’, 도리깨로 곡식을 타작하면서 부르는 ‘타작소리’ 세 유형이 포함되고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돌 굴리는 노래’, 제10호 ‘멸치 후리는 노래’와 17호 ‘진사대’, 18호 ‘귀리겉보리 농사일 소리’, 20호 ‘제주시 창민요’, 21호 ‘삼달리 어업요’, 22호 ‘영장소리’ 중 1호는 ‘행상소리’, 2호는 ‘진토굿파는 소리’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제주민요 관련 자료 구축은 주로 동영상과 구술 자료가 중심이다. 직접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콘텐츠화 했다.

이미 전승의 기반이 되던 민속현장은 소멸되어 구연 행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나, 노래들은 아직도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채록한 KCTV 제주방송 기증 영상 자료는 민속현장이 남아있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 또 나요당 이소라 선생 기증 구술 자료는 1984년부터 1998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들로 제주민요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엮어서 『제주민요사전』(2015) 이나 『나요당 기증-제주민요 자료집』(2018) 발간과 음원 보존으로,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민요의 저장고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5〉 제주민요 동영상 자료

연도	저작권	제목/내용
2001~2003	KCTV제주방송	KCTV기증 민요 자료 97건
2012~2015	제주학연구센터 수집	의귀리 김예, 김녕리 한성복, 제주시 강경자, 제주시 고순금, 상천리 박정환, 애월읍 남읍리 진선희, 동복리 양금녀, 삼달리 강성태, 제주시 박순재, 서귀포시 박경선, 서귀포시 김정자, 유수암리 강노성, 제주시 이용옥, 제주시 김원호, 제주시 김향옥, 서귀포시 하효동 김정자, 해녀노래 보존회, 성읍리 조일수, 제주시 한춘자, 서귀포시 예래동 강승화
2015	국립제주박물관	고한구의 발랄기 민요 1건
2015	혼소리예술단	양정에 제주민요 8건
2015	김영화	남원읍 남원리 김영화 제주민요 10건
2018	안복자	안복자 제주민요 22건

〈표 6〉 제주민요 구술 자료

연도	저작권/소장처	제목/내용
1982	제주학연구센터 소장	제주민요47건
1984~1998	나요당 이소라 기증	이소라 기증 제주민요 241건
1991	MBC 제주방송 기증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10, 171건
1997	한국구연민요연구회편	한국구연민요 8건
2001	북제주군 기증	아름다운전통의 소리 : 북제주군 전래민요 30건
2001	KCTV 기증,	제주민요자료 71건
2003~2005	김경성 기증	김경성의 제주민요 19건
2004	귀리걸보리농사일소리 보존회	귀리걸보리농사일소리 1건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민요 자료 87건
2005~2008	제주특별자치도	소장 자료 27건
2009	김주산 기증	김주옥의 제주민요12건, 김주산 제주민요12건
2010	민요패 소리앗 기증	제주전래동요 24건
2010	양금녀 기증	양금녀의 제주민요 15건
2011	안보순 기증	제주민요 18건

〈표 7〉 제주민요 주요 연구물(제주학DB)

연도	저자	제목	구분
1963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2001)
1987	강창혁	齊州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 分析	『탐라문화』 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1	양영자	齊州民謠 시집살이 노래 研究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강정식, 좌혜경	耽羅文獻 解題(1) - 口碑文學・民俗學 -	『탐라문화』 14호 (탐라문화연구소)
1995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민요지도곡집』	제주도교육청
1999	김도훈,	제주민요 <맷돌노래>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 : 恨 Motif 를 위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양영자	제주도 민요 논문 : 제주 민요의 표현 특질 考	『제주도연구』 22집 (제주학회)
2005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	『제주섬의 노래』 부록
2010	오만택	제주민요 교육을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 6 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좌혜경	제주민요 창자 중심의 보전 방안	『한국민요학』 제37호(한국민요학회)
2013	이채원	무형문화유산 전승환경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고서
2015	좌혜경 외	『제주민요사전』	제주학연구센터
2016	정혜진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민요지도방안 : 2009개정 교 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中 제주민요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6	변성구	『제주도 전통문화자원과 그 활용 - 성읍민속마을의 사례 를 중심으로 -』	『한국민요학』 제47집 (한국민요학회)
2018	이소라	『나요당 기증 - 제주민요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

2) 제주도 무속과 신화 ‘본풀이’ 자료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도 무속이 잘 남아있어 사람들의 삶과 같이하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신의 본을 푸는 본풀이 역시 각 유형별 특징이 뚜렷하다. 제주 지역의 무가권은 가장 특징적인 무가자료를 상당량 보유한 지역이면서 큰굿의 독자적인 구조로 인해, 한국 무가권 중 가장 생동

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홍태한, 2001 : 130-131)

특히 ‘큰굿’에서 행해지는 ‘일반신본풀이’에는 모든 굿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무조신에 대한 의의와 신들의 삶을 통한 인간의 욕망과 기원, 가치관, 신관, 자연관, 세계관이 반영되고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미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멧감본풀이>, <지장본풀이>가 있다.

이외에도 각 마을의 ‘할망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에 좌정한 당신의 내력담이나 신의 본을 푸는 ‘당신 본풀이’와 집안의 조상에 얹힌 조상신 본풀이(조동일, 1997 : 48)가 있다.

제주도 본풀이는 무속 의례인 ‘굿’과 그 의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심방, 그리고 실제 심방에 의해 의례가 펼쳐지는 장소인 신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무형문화유산이다.

현재 무속의례와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송당리 마을제, 제주 큰굿, 신당이 있다.

그간 기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당은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제주도무형문화재인 <송당리 마을제>, <제주 큰굿>, <송당 본향당>, <새미한로산당>, <와흘 본향당>, <수산 본향당>, <월평 다락굿당>이다.

특히 일반신본풀이는 글로벌 유산으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등 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유산(Story Heritage)으로서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신본풀이의 <천지왕본풀이>는 영신의례 초감제에서 천지개벽을 상징하는 창세신에 대한 본을 풀고 있다. 무속의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한데 굿을 거행하는 곳은 신이 하강하거나 의례가 진행되는 공간으로써 신성한 세계의 탄생을 상징한다.

<할망본풀이>는 천지 조판과 우주적 질서 회복으로 세계가 탄생되고, 그 속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인간창생을 다루고 있으며, 무속의 세계를 창안하고 무법과 굿의 원리, 무구, 약기 등의 무의식 창조 원리를 설정한다.

〈이공본풀이〉의 꽃감관인 이공신은 여러 종의 주화를 관리하는 ‘서천꽃밭’이라는 상상 공간에 좌정한 신격으로 믿어지며, 서천꽃밭의 꽃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과 사, 환생의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일반신본풀이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탄생한 후, 인세와 관련한 인간들의 삶의 원리를 담는데, 〈삼공본풀이〉는 인간의 운명은 사람들의 노력만이 아닌 자신이 태어날 때 지닌 운명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세경본풀이〉는 발이나 바다 경작을 통해서 얻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산신인 여신 ‘자청비’를 주인공으로 삼아 이야기가 전개된다.

〈시왕맞이제〉에서 불리는 〈차사본풀이〉는 저승의 시왕 및 저승차사에 대한 의례로, 사후 세계인 저승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승 세계에 대한 원리가 잘 나타나고, 〈문전본풀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인 ‘집’에 대한 공간적 의미나 가치를 제시한다. 〈칠성본풀이〉는 칠성신(뱀의 형상)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삶과 부(富)를 기원하고 있다.

조현설은 이러한 굿과 일반신본풀이의 기본 원리에는 ‘화해’의 문화가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조현설, 2011) 본풀이 내부 구조에서 남녀가 대립할 경우 화해는 여성에 의해, 힘을 통한 제압의 방식이 아닌 양보와 포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대립은 딸에 의해서, 여성과 여성이 대립할 경우는 힘이 있는 쪽의 양보(증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굿은 그 자체가 인간과 신, 신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교의례이며 그 화해는 여신으로부터 촉발되고 창조신화를 통해 제시되는 세계의 질서는 천지왕과 소별왕, 대별왕과 같은 남성 신들에 의해서 구축된다. 그러나 서로간의 융화와 화해는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의 화해처럼 이승과 저승의 삶과 죽음, 땅과 바다, 승리와 패배, 번영과 쇠멸의 이항대립을 넘어서서 화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청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여신과 남성 신과의 대응에서 목축과 농경의 갈등, 남성 우위의 가족제도나 가문의 법도를 넘어서서 화해로 이끌면서 오곡의 종자를 받아 세경 땅에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의 일반신본풀이는 고난 받는 문화여성 영웅들의 삶을 통해 신으로

좌정하는 신화의 기본 원리를 잘 갖추고 있다. 여성의 탄생은 재물 한 근이 모자람이 원인이 되어 ‘부족함’의 모티프에서 시작되고, 여성들은 수난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운명이 전제되고 있으며, 여신들은 천상적인 지존한 존재에 의해 수태가 되지만 가장 여성들의 일인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성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여성들의 강인함은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길찾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화영웅적인 면모는 자식들이 지나는 신적 직능과 어머니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왕아기씨’는 무조신인 문화영웅적인 아들을 낳았으며, <이공본풀이>의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인 ‘한락궁이’를 낳아서 부친을 찾아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되기도 했다.

본풀이에는 생자와 망자에 대한 이중적 사고와 저승, 저승신에 대한 관(觀)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승에서의 어려움을 저승신의 위력을 빌어 해결하려는 사고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곧, 신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 중심의 논리가 반영되고 신의 위력 여하에 따라 신에 대한 공경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저승은 질서가 잡힌 곳이고 이승은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사고가 나타난다.

제주 무속 또는 본풀이(신화) 관련 동영상, 사진, 구술 자료를 목록화하면 <표 8>, <표9>, <표 10>, <표 11>과 같다. 주요 자료는 강정식 선생의 기증 자료 16건(224편)과 KBS ‘제주 큰굿’ 1건(16일 굿, 87편), ‘이중춘 대역례 굿’ 1건(76편)이다. 그리고 본풀이 자료로 이용옥 15편, 서순실 12편, 오용부 15편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칠머리당 보유자인 김윤수 소장본 30편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표 8〉 제주 무속 동영상 자료

연도	저작권/소장처	제목/내용
1986	김윤수 기증	삼시왕 연맞이 3편
1986	"	김윤수 십방굿 4편

1996	"	신주당굿맞이 3편
1998	"	4.3사건 50주년 희생자 위령제 외 5편
미상	"	제주칠머리당굿 보존회 소리영상 1편
미상	"	와흘 동이풀이 5편
2002	"	신촌 성주풀이 3편
2005	"	안씨집안 시왕맞이 4편
2008	"	제주도 굿, 제주도 본풀이 초청공연 1편
2009	"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1편
미상	제주 MBC	제주 MBC 제주의 굿 1편
2004	제주특별자치도 소장	이중춘 대역례 굿 76편
2005	강정식 기증	송당 마불림제(7.13) 2편
2005	"	하도각시당 영등굿(2.13) 1편
2006	"	신양잡수굿(2.15) 15편
2006	"	북촌영등굿(2.13) 13편
2006	"	와흘본향당 신과세(1.14) 8편
2006	"	와산불뚝당 대제(3.13) 3편
2010	"	조천영등굿(2월 택일) 18편
2011	"	제주풍어굿 13편
2012	"	중달잡수굿 21편
2012	"	성산풍어굿 21편
2012	"	고성영등굿(2.15) 19편
2013	"	세화본향당굿(2.12) 4편
2013	"	동북본향대제(1.07) 15편
2013	"	송당본향신과세(1.13) 15편
2013	"	수산본향신과세(1.14) 17편
2014	"	제주칠머리당영등송별제 23편
2014	"	세월호 무혼굿 16편
2011	KBS 제주	KBS 제주큰굿(16일 굿) 87편
2017	제주학연구센터	구좌읍 송당마불림제(7.13) 4편
2017	"	제주 일반신본풀이 이용옥본 15편
2018	"	김녕잡수굿 15편

2018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환영제 5편
2018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송별제 14편
2018	"	와산불뚝당대제 2편
2018	"	제주 일반신본풀이 김돌산본 10편
2018	"	제주 일반신본풀이 오용부분 15편
2019	"	제주 일반신본풀이 서순실본 12편

〈표 9〉 제주 무속 구술 자료

연도	저작권/소장처	제목/내용
1997	김윤수	제주칠머리당영등굿(2, 14) 16편

〈표 10〉 제주 무속 사진 자료

연도	저작권/소장처	제목/내용
1987, 1990, 1992	강만보 가증	제주사람들의 마을굿과 포제 137건
200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64건
2012	"	안덕면 대평리 본향당제 10건
2012	"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풍어제 13건
2012	"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 24건
2013	김기삼 가증	구좌읍 동북본향제 1008건
2014	강정식 가증	제주의 해신당 101건
2014	"	제주도 영등굿, 잠수굿, 해신제 19건
2015	제주학연구센터	구좌읍 김녕리 본향당 11건
2017	"	제1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89건
2018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51건
2018	"	조천읍 와산불뚝당제 35건
2018	"	구좌읍 김녕리잠수굿 28건
2018	"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기메전 64건
2019	"	조천읍 와흘본향당제 24건
2019	"	제주의 아름다운 여신당 409건
2019	"	송당본향당 마불림제 187건

2019	"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 65건
2019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송별대제 73건

〈표 12〉 제주신화 주요 연구물(제주학DB)

연도	저자	제목	구분
2002	김현선	제주도(濟州島)와 유구(琉球)의 무조신화(巫祖神話) 비교 연구(比較 研究) - 『초공본풀이』와 엄미(奄美) 『사송겸(思松兼)』 서사무가(敍事巫歌)를 중심(中心)으로 -	『민속학연구』 제10호 (국립민속박물관)
2005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제17호 (국립민속박물관)
2005	김현선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 제28집(한국고전학회)
2007	김현선	제주도 돛제와 궤네깃당 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원)
2008	김현선, 변남섭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3호 (탐라문화연구원)
2009	신연우	〈제석본풀이〉 서사구조의 역사성과 문학성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학회)
2010	김병주	여성신화 〈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5 (한국심리학회)
2011	신연우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한국고전여성학회)
2012	강진옥	〈차사본풀이〉 연구 - 강림(姜林)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25집 (한국고전연구회)
2012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 (배달말 학회)
2013	신연우	제주도 신화와 '고통'의 문제 -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7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신연우	〈배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제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문무병	삼승할망 콤플렉스 연구	제주학회제43차 전국학술대회(제주학회)
2016	정제호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 - 출산 화소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	『한국무속학』 제32집 (한국무속학회)
2018	좌혜경 최원오,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연구	제주학연구56 (보고서)

2018	정제호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쫓겨남’의 의미와 신화적 성격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81집
2019	좌혜경, 조현설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제주학연구65(보고서)

〈표 11〉 제주무속 주요 연구물(제주학DB)

연도	저자	제목	구분
1989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수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祭儀的 기능과 意義	『이화어문논집』 10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이수자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7(제주학회)
1993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10 (제주학회)
2000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강봉수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 - 일반신본풀이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제주도연구』 24집 (제주학회)
2004	박성석, 조구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고찰	『배달말』 34(배달말학회)
2006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여성고전문학연구』 12(한국여성고전문학연구회)
2008	조성윤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3호 (탐라문화연구원)
2008	김선희	<세경본풀이> 研究 - 分析心理學的 接近 -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김형근,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집가제굿> 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제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이경애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 당신본풀이와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후사(フサ)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34호 (탐라문화연구원)
2009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3집
2010	성정희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제45집 (겨레어문학회)
2011	한양하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의 양상과 의미	『은지논총』 제29집 (은지학회)
2011	정아용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성격 연구	울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윤수미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 제주도 巫舞 비교 연구	『한국무용연구』 29권 (한국무용연구회)
2011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제와 그 의미 -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2012	강진옥	〈차사본풀이〉 연구 - 강림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이원영	〈가문장아기〉를 통해 본 한국 무속신화의 세계적 소통 가능성 고찰	『겨레어문학』 제53집 (겨레어문학회)
2014	강순희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 기능과 전승원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정진희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 - ‘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송영은	〈세경본풀이〉 구조와 인물 연구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이재숙	제주 당신(堂神)본풀이 백주또신화의 공동창작 연극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6	제주학 연구센터	“무의(巫醫), 치유로서의 제주굿” 학술세미나	제주학연구센터(세미나)
2017	정진희	제주도 무속 신화 〈문전본풀이〉의 가부장제와 ‘어머니로 살기’	『국문학연구』 제35호 (한국국어국문학회)
2017	좌혜경, 강소전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제주학연구43(보고서)
2017	김석윤, 송정희, 이재섭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제주학연구45(보고서)
2018	정제호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쫓겨남’의 의미와 신화적 성격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81집
2018	강소전	제주도 무가 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 제50집 (제주학회)
2018	좌혜경	『제주의 이야기유산』	제주학연구센터 (단행본)

3) ‘제주해녀문화’ 관련 자료

제주해녀는 해양채집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여성공동체의 문화로 자연생태에 적응해서 민속지식을 창안하고 잠수기술을 축적하였다. 해녀공동체는 바다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된 해산물을 판매하고 분배(해조류 채취, 양식장 운영)해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생업관련 민속지식을 지닌 전통기술

보유자로서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축적하였다.

이처럼 해녀들의 ‘물질’이라는 생업에서 파생된 민속현상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이며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니고 지속보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016년 11월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제주해녀문화’라는 명칭으로 등재하고, 2017년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해녀’를 등록했다. 이처럼 제주해녀가 등재된 것은 지역문화가 세계에 대응해서 글로벌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녀를 연구하는 지역학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2009, 11, 4, 548호)에서 “해녀문화는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 민속, 지식, 신앙, 민요, 작업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조의 ‘무형문화유산’ 정의 항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 문화유산의 관습, 재현, 표현, 지식, 기술 뿐 만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곧 해녀문화의 범주는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에 따른 몸 기술, 조수의 이용, 채취물의 종류, 채취 시기,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규약과 관습 등을 들 수 있으며, 언어표현 영역은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와 해녀에 관한 전설, 구비전승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공간으로서 바다작업장과 불턱, 그리고 물질 할 때 입는 물옷과 물질도구(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0호)의 창안과 활용 등도 중요한 무형유산의 유형에 포함된다.

‘전통 기술 보유자’라는 점에서 물질기술과 민속지식은 해녀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물때를 이용하거나 바람을 활용하고 어장에 대한 지식, 해산물에 대한 생태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어법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

해녀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안정되게 일하기 위해서 무속의례 영등굿, 잠수굿을 치르고 있는데, 의례의 중심 장소는 당(堂)이다. 이외에도 마을생업 공동체

가 벌이는 곳과 수산업협동조합이 벌이는 풍어굿, 김녕 잠수굿이 포함된다.

언어 표현 범주에 들어가는 해녀노래는 해녀문화의 브랜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고, 배에 노를 젓는 노동과 함께하므로 원시어업 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해녀문화를 생산하고 보전해 나가는 해녀공동체의 단위인 어촌계(102개)는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경제 체제 내에서 그 역할을 하고, 해산물의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금채기를 설정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공동체의 특성은 상호부조와 지역사회 재투자(학교바당, 이장바당, 마을도로 포장, 전기 가설) 등의 긍정적인 상호배려의 공동체로서 해녀공동체를 운영하는 규약이나 관습은 해산물의 해금(解禁), 입어 자격, 어장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녀공동체를 상징하는 ‘불턱’은 몸을 데우고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나 정보전달과 소통의 장소이며, 이곳에서 인간적인 질서를 배우며, 의사결정을 위한 원시회의 문화 공간이기도 한데, 바다자원의 공유를 바탕으로 서로가 나누는 호혜의 문화를 기본으로 선·후배 간, 상·중·하의 계급 간에 상호배려의 미덕도 간직하고 있다.

제주해녀에 대한 자료는 제주해녀박물관이 유형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현재 작업에 임하는 해녀들 4000여명이 현장에서 ‘물질’ 생업에 임하면서 공동체를 영위하고 있어서, 해녀 자체가 유·무형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아카이브에 탑재된 자료들은 KBS, MBC, JIBS 등 방송국이 소장한 동영상 자료가 있고, 사진자료로서 평생 제주해녀의 삶을 찍어왔던 서재철 선생의 기증 자료와, 유네스코 등재 이후 실제 바다에서 작업하는 ‘제주해녀의 얼굴’을 주제로 현재 작업하는 해녀들의 공동체가 사진 촬영되어 책자로도 발간되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제작과 거기에 얹힌 일화 등을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인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 지식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 20건이 있다.

제주해녀에 관한 노래나 신앙 부분은 제주민요, 그리고 무속 콘텐츠에 포함되고 있다.

〈표 13〉 제주해녀 동영상 자료

연도	저작권/소장처	제목/내용
1995	KBS 제주방송	제주 해녀의 숨비소리 1편
1998	"	제주여자 비바리 2편
2004	"	신 해녀실록 1편
2008	제주MBC	다큐멘터리 해녀 5부작
2008	"	바다를 건넌 제주해녀 1편
2016	SBS	‘바당여자(해녀)의 삶’, 인류유산이 되다 1편
2017	법환리해녀학교	바다에서 꿈을 캐는 법환리 해녀 1편
2018	KBS 제주방송	어망의 바당 12편
2019	JIBS	제주해녀의 사계 4편
2019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21건
2019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제주 해녀문화 학술대회 9편

〈표 14〉 제주해녀 사진 자료

연도	저작권/소장처	제목/내용
1968 ~1978	서재철 기증	해녀 125건
2002	제주학연구센터	구좌읍 행원리 해녀 20건
2006	"	구좌읍 하도리·세화리, 해녀 각 41건, 13건
2006 ~2012	홍경자 기증	한수리 어촌계 해녀 120건
2008 ~2010	강만보 기증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출항 제주 해녀/ 제주 사람들의 출항 물질 518건
2011	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해녀축제 47건
2012	데이비드 네메스 기증	‘해녀’ 16건
2012	해녀박물관 소장	‘해녀’ 12건
2017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의 얼굴 108건
2017	"	제주해녀의 음식 639건
2019	"	남해안 해녀의 얼굴 349건

〈표 15〉 제주해녀 주요 연구물(제주학DB)

연도	저자	제목	구분
1979	강영희	濟州道 海女 뱃노래의 分析的 研究 : Hetero phonic의 性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최동황	잠수운동이 체력에 미치는 영향 : 제주해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9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제주해녀 항일기념 사업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해녀항일기념사업 위원회 (단행본)
1997	양순자	海女노래 辭說에 드러난 海女の 經濟活動과 海女노래 傳承方案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양원홍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김희숙	제주 칠머리堂굿 12祭次에 나타난 舞踊研究 : 公演實行을 통한 舞臺化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강문봉	제주해녀 노젓는소리의 지역별 비교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좌혜경	해녀노래의 노동기능과 정서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해녀박물관)
2004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조규익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 구성 및 전승의 원리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원)
2007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고춘식	제주해녀춤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김수정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뱃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유형숙	해녀 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국토해양부연구보고서
2009	한유진	제주도 영등굿의 축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현홍준, 서용진, 고계성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37호 (탐라문화연구원)
2010.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호 (탐라문화연구원)

2010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호 (탐라문화연구원)
2011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11	민윤숙	제주 해녀와 오토바이 - 제주 해녀들의 물질과 사회적 지위 -	『역사민속학』 제3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유철인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4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김상미	해녀의 공공복지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김수희	독도어장과 제주해녀	『대구사학』 109호 (대구사학회)
2012	윤성희	제주 전통 해녀복을 응용한 문화 관광 상품 개발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조성윤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호 (탐라문화연구원)
2013	김영순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문순덕, 현진숙, 장혜련, 박제연	『해녀문화유산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보고서 (단행본)
2014	좌혜경, 강정식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제주학연구12(보고서)
2015	고형우	제주 해녀의 물질작업과 농작업이 근 골격계 질환 및 통증,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양희주	제주해녀 어획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박종오	서남해 해녀의 어로방식 변화 고찰	『도서문화』 제46집 (도서문화연구원)
2015	강승진, 좌혜경, 유철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 - 제주해녀어업을 중심으로 -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 (단행본)
2015	데이비드 앨런 하비, 현길언	『제주 해녀 JEJU HAENYEO』	제주특별자치도 (단행본)
2016	김권호, 권상철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윤용택	제주해녀에코뮤지엄 조성연구 사례	2016해녀문화 국제심포지엄 : 박물관과무형유산 (해녀박물관)

2016	오영주	제주해녀(잠녀)의 식생활 문화와 지속가능한 영양학	2016해녀문화 국제심포지엄 : 박물관과무형유산 (해녀박물관)
2016	김필환	제주해녀의 건강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지	부산가톨릭대학교박사학 위논문
2016	이선화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 화 방안	제주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17	정민희, 이용규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 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한국도서연구회)
2017	이한영, 김종두	제주 해녀의식이성 텃 섭취를 통한 혈압 및 총콜레스테 롤 감소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권 (디지털융복합연구회)
2017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해녀 음식문화』	제주학연구센터 단행본
2017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해녀의 얼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단행본
2017	김지인	제주 해녀의 삶에서의 건강관리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박준희외	제주 고령 해녀의 체온과 심박수 일내 변동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25권(한국생활환경학회)
2018	김동현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史的)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6집 (한국언어문화회)
2018	진쟁	제주해녀 이미지의 관광자원 활용가치 탐색 : 표본조사 에 따른 집단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8	양진숙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홍정관	상군이 된 두 해녀의 생애사 연구	이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8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해녀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단행본
2019	조소현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 승 :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좌유정	컨텐츠를 적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제 주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결어

이 글은 2014년도 오픈 이후 제주학아카이브 자료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제주도 무형유산 특히 민요, 해녀, 무속의례나 신화 자료 구축 실태를 정리해서, 제주학 아카이브가 지향해야 할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축 된 자료 중, 디지털 자료는 제주학이나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데 용이한 자료들이다. 제주학 아카이브는 무형유산 아카이브로 설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그것은 제주문화의 주요콘텐츠가 무형유산들이며, 이 무형유산은 제주사람들의 정신이 담기고 제주인의 정체성이 잘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소멸위기에 처해 있어 지속 보전의 방향성 제시가 시급하다.

1차적인 연구 자료는 연구자들에게 활용됨과 동시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창작에도 풍부한 원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주 민속관련 연구 자료들은 제주민의 삶이 풍부하게 남아있는데, 제주 무속신화 본풀이, 제주 해녀문화 등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 제주학아카이브에 탑재된 제주에 관한 체계적인 제주학 자료는 대내외 관광객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 관광은 문화관광을 지향하고 있어서 제주학은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소개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주학아카이브 자료의 연관관계를 인식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시소러스(Thesaurus)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검색어집’, ‘컴퓨터에 기록된 정보의 색인’, 혹은 유사어사전(類似語辭典), DB에 입력된 단어와 관련된 단어 집합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어(關聯語)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검색어로 입력된 단어 뿐 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단어들 예를들면 동등, 계층의 관계를 인식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학 자료의 지식자원화를 통한 제주학의 글로벌화는 제주학 연구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전략 목표로 삼을 수 있다.(좌혜경, 2019 : 79-81)

무형유산 자료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료제공 서비스는 제주 관련 연구 및 교육, 기초자료로 활용도록 자료를 개방(온·오프라인 동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것으로 제주학 아카이브관 설립의 독립 공간 구축은 제주학 뿐만 아니라, 제주도무형유산의 대내외 홍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제주학아카이브관은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기능을 갖추고, 문화유산 선양을 목표로 LAM(Library, Archive, Museum)의 성격을 지니면서, 제주학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전자기록물 보관 및 온라인시스템으로 자료홍보를 위한 정보관, 콘텐츠 전시관과 교육관의 기능을 갖추고, 기록관리 기능대비 공간(작업, 사무, 서비스) 구성과 동선 체계를 구체화하여 기록매체 유형별 보존과 환경에 맞는 과학적·다기능 시설 및 재난 시 복구기능, 분산 보존대책, 전자기록물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단체·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사업 방안을 도출하며, 도청·시청 등 공공기관과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민소통과 정보공유의 장(場)의 공간, 아카이브관 마련으로 제주학 자료의 공개, 열람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아카이브의 기능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현대적 아카이브 전시 기본방향 및 상설·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정책 기획, 관리 프로그램 기획으로 정책개발, 대외교류 협력, 홍보 등과 자료 보존 계획 수립, 제주학 자료에 맞춘 표준 모델 개발, 협력망 구축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수집 및 등록, 외부공개는 이용자 친화적인 지역인문자원 통합관리 모델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와 열람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 중 귀중본 지정 및 고서 보존 관리 업무, 기증 문고 설치 등의 도서 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콘텐츠 개발, 멀티미디어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참고문헌

- 김시덕, 2000, “박물관 정보화를 위한 기초정보 생산과 DB구축”, 『박물관학보』 3, 한국박물관학회.
- _____, 2010, “민속아카이브와 사진 민속학”, 『생활문화연구』 26, 국립민속박물관.
- 박순철, 2019,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제주학연구센터, 12.
- 부산광역시, 2001, 『부산학 연구문헌 목록집』, 부산발전연구원.
- 신종순 외, 2011, 『기록보존의 실제』, 세화.
- 오동욱, 2011, 『대구근대자원 아카이브 구축전략』, 대구경북연구원.
- 이용준 외, 2010, 『e-북 르네상스 전자책 빅뱅』, (주)한국학술정보.
- 이원영 옮김(*Theodore R. Schellendarg* 저), 2002, 『현대기록학개론』(*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진리탐구.
- 전수진 · 이미영 공역, 2008,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사례연구2』(*Managing Public Sector Records: Case Studies-Volume2, (Case1-12)*), 진리탐구.
- 제주학연구센터, 2016, 『글로벌(glocal)시대의 제주학의 역할과 위상』.
- _____, 2018,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 제주학회, 2011, 『제주학 연구성과와 과제』, 제주학회 · 제주발전연구원.
-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 조현설, 2011, “제주여신 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제36집.
- 좌혜경, 2019,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계획”, 『춘천학연구』 창간호, 79-81.
- 최순희, 2011, 『정보검색과 학술정보의 활용』, 에듀컨텐츠.
- 홍태한, 2001,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양상”,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Abstract

Establishing the Jeju Studies Archives and Jeju Intangible Heritage Materials

Choa, Hyekyu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stablished the Center for Jeju Studies on August 12, 2011, and an affiliated organization to Jeju Research Institute was founded on October 11, 2011, to contribute to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academic promotion through Jeju Studies.

From its opening, the Center for Jeju Studies has focused on systematically collecting research materials relating to Jeju Studies and establishing a database for them, alongside preserv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m at home and abroad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Jeju Studies Archives System.

The Jeju Studies Archives allows scholars and the public to share information on Jeju Studies by providing academic materials and more through the website. Its purpose lies in integrating, exchanging and globalizing Jeju Studies materials alongside the assetization of knowledge through Jeju Studies-related material utilization and additional value increase.

The materials that can be utilized most effectively among those established include Jeju intangible heritages such as Jeju haenyeo, Jeju folk songs, and Jeju shamanic rituals, shrines, and their narrative myths.

Globalizing Jeju intangible heritages accords with the establishment of

* Jeju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regional studies and the goal of regions to correspond and respond to globalization. Intangible heritage materials most strongly embody regionality, the spirit of local people, and fully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region. Materials imbued with local culture as well as people's identity can be globalized in terms of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locally distinctive cultures can be recognized around the world and this makes it necessary to develop the logic for the glocalization of the materials and to systemize local cultures in an interdisciplinary fash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material value of Jeju intangible heritages,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archive establishment, and propose plans for future utilization with the hope that the Jeju Studies Archives can be positioned as an established space for materials for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of Jeju intangible heritages.

Key words :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Studies Archives, Jeju haenyeo, Jeju folk songs, Jeju shamanic rituals, narrative myths, shrines, Jeju intangible heritages